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FTA Performance of FTA Awareness and Applicability

김태인(Tae-In Kim)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제1저자)

이준건(Jun-Jian Li)

루동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전임강사 (공동저자)

목 차

- I. 서 론
- II. FTA 활용현황 및 선행연구
-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IV. 실증분석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국문초록

강원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도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성은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 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업은 HS 및 협정세율 인지도의 경우만 FTA 수입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이 수출자에게 보다는 FTA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가절감 등 가시적인 영향(성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 활용이 강원도 수출기업에게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가 상당부분 철폐되고 안정적인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FTA 인지도, FTA 활용도, FTA 성과, 강원도

* 2013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과제번호: 120131445). 본 연구는 저자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에 제출한 2013년 강원도 FTA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였음.

I. 서론

오늘날의 국제적인 통상환경은 WTO 체계가 갖고 있는 다자간협정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지역경제협정의 일종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존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에 발맞추어 9개의 FTA를 체결하여 46개국과 FTA를 발효하였다. 콜롬비아, 호주와는 FTA 협상을 완료하였고,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과는 협상 중에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FTA의 양적인 증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활용한 실질적인 수출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FTA의 경제적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업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FTA를 수출성과 제고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재권 2013). 이에 따라 최근 한국정부는 FTA 활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 2014; 이준간, 2013, 관세청 FTA 컨설팅, 무역협회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FTA 국가와의 전체 누적교역량은 35.3%까지 증가되었다. 한-미 FTA 활용률은 76.4%, 한-EU FTA 활용률은 80.9%, 한-ASEAN FTA 활용률은 38.5%이다 (산업부, 2013).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6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2013).

이러한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FTA 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연구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박철구, 최장우, 2012). FTA활용역량 (Capabilities of Utilizing FTAs)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윤영호 및 나도성 (2013)의 연구 결과는, FTA 환경에서 FTA 활용역량이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의 FTA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지역과 산업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강원도는 그 지역적 특색으로 인하여 제조기반이 매우 여력하며 대기업의 투자가 적고 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일보, 2013,12,12).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토대로 강원도 지역에서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II. FTA 활용현황 및 선행연구

1. 강원도 FTA 활용 현황

강원도 기업의 FTA 활용현황 및 FTA 활용지원제도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3년 4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3년 현재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에 등록된 강원도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300개 업체를 업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화, 팩스, e-mail 및 직접방문을 활용하였다. 수거된 총100개의 설문지 중에서 FTA 체결국가와 수출입을 하지 않거나 FTA를 활용하지 않은 14개를 제외한 최종 86개 표본을 중심으로 자료 정리 및 통계처리를 수행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의 업종, 종업원 수, 연매출액 및 수출비중 등에 대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기업의 일반현황

구분	빈도수(개)	비율(%)	
기업 업종	농림수산물/식품	13	15.1
	시멘트	1	1.2
	화학/화장품	10	11.6
	플라스틱/고무	6	7.0
	광석	1	1.2
	철강공업	2	2.3
	기계/전기전자	13	15.1
	자동차 및 부품	4	4.7
	의료기기	22	25.6
	문구	1	1.2
	기타	13	15.1
종업원 수	10명 미만	21	24.4
	10~50명	44	51.2
	50~100명	10	11.6
	100~500명	11	12.8
	500명 이상	0	0
수출업무 종사자	3명 미만	47	54.7
	3~6명	32	37.2
	7~11명	6	7.0
	12~15명	0	0
	15명 이상	1	1.1

구분		빈도수(개)	비율(%)
연 매출총액	10만 불 이하	13	15.1
	10만~100만 불	28	32.6
	100만~1,000만 불	30	34.9
	1,000만~5,000만 불	10	11.6
	5000만 불 이상	5	5.9
수출비중	0~20%	30	34.9
	21~40%	17	19.8
	41~60%	19	22.1
	61~80%	12	14.0
	81~100%	8	9.3
계		86	100

응답기업의 업종은 의료기기, 농림수산물, 기계전기전자, 화학/화장품, 플라스틱/고무, 자동차 부품, 철강공업, 문구, 시멘트 등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었다. 종업원 수는 '100명 이하'가 전체 87.2%에 달하고, 수출업무 종사자 역시 '6명 이하'가 전체 92%로 응답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기업의 연매출액은 '백만 달러에서 천만 달러 사이'가 전체 34.9%, 수출비중은 '20%이하'가 전체 34.9%로 각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요 수출지역(FTA 발효국)은 ASEAN, EU, 미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칠레, 싱가포르, EFTA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출에 있어서 FTA를 활용(FTA C/O 발급 등)하는 지역은 ASEAN, 미국, EU, 칠레와 인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에 FTA를 활용(FTA C/O 수령 등)하는 지역은 ASEAN, 미국, EU, EFTA, 칠레와 인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FTA 인지도가 높은 산업은 플라스틱/고무, 철강공업, 자동차 부품, 화학/화장품, 의료기기 순서로 나타났으며, FTA 활용도가 높은 산업은 자동차 부품과 철강공업이었지만, FTA 지원 제도 활용에 있어서는 광석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FTA 성과가 높은 산업은 광석산업, 철강공업, 의료기기, 화학/화장품, 플라스틱/고무, 자동차 부품, 농림수산물, 시멘트산업 순서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1)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었고, 2) 주요 수출입 지역(FTA 발효국)은 ASEAN, EU와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3) FTA 인지도는 플라스틱, 철강과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4) FTA 활용도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공업 산업에서, 5) FTA 성과는 광석, 철강공업과 의료기기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2. FTA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크게 FTA 활용 차원과 중소기업 활용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FTA 활용 차원의 연구는 행정절차의 복잡성, 활용상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 활용의 장애요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장애요인, 활용지원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 FTA 활용의 문제와 개선을 제시한 연구와 인지도 및 활용도 조사, 활용률 분석 및 활용전략, 활용역량과 수출성과간의 관계 등 관계요인들을 조사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남풍우·최준호 (2007)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확인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재진 (2008)은 FTA가 확대될수록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행정비용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생산공장보유업체지정제도, 수출자인증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원산지정보관리 전담기관을 설립 및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인교 (2010)는 한-ASEAN FTA의 수출입 실적을 중심으로 FTA 활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들은 FTA를 활용함에 있어 많은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에 대한 부담, FTA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기업의 원가정보 제공 기피, 산업별 협회의 가능성과 역할 취약, 원산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전문가 부족이 FTA 활용의 제약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김한성 등 (2010)은 무역업체의 FTA 활용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며 업체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교역 상대국의 수입 관세율 확인 및 통관절차 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FTA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태영 등 (2011)은 FTA 활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장애요인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원산지정보 공유 유인 미흡, 원산지관리시스템 미비, 원산지관리 절담인력 부족, 원산지정보 공유지원조직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장기영 (2012)은 한-EU FTA 협정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FTA를 활용한 국내 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김한성 등 (2008)은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률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원산지규정 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김한성 (2009)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등 기 발효된 4개의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FTA 특혜관세의 활용률을 통해 분석하고, 각 협정간의 활용률 차이와 원인을 연구하였다. 조미진·안경애 (2011)는 국내기업의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조사하고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산지제도 개선과 원

산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하였다. 나도성·윤영호 (2011)은 기업의 FTA 원산지 활용역량이 수출성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으며, 기업의 FTA 원산지 활용역량으로 원산지규정의 이해도, 원산지판정 능력수준, 원산지절차 이해도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활용 차원의 연구는 활용상의 문제점, 활용현황 및 영향, 활용극대화를 위한 지원 및 개선방안, 경쟁력 강화방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송희영·이영주 (2008)는 한-미 FTA의 영향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한-미 FTA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김무한 (2010)은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차이는 대기업 관련 산업보다는 중소기업 관련 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엄격성, 복잡하고 비용 지향적인 행정절차를 들고 있다.

이도형 (2013)은 수출입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한 추정적 사실을 근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중소기업 관점에서 한-EU FTA 활용현황 및 그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업과 정부에게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철구 (2013)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정보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정보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유수·이준호 (2008)은 한-EU FTA 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분도 (2009)는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한-EU FTA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FTA를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재섭 (2012)은 한-미 FTA가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소기업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FTA 활용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FTA 활용의 행정절차 문제와 개선	남풍우·최준호 (2007)	한-아세안 FTA의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확인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안재진 (2008)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생산공장보유업체지정제도, 수출자인증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원산지정보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정인교 (2010)	한-ASEAN FTA의 수출입 실적을 중심으로 FTA 활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함
	김한성 등 (2010)	무역업체의 FTA활용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며 업체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이태영 등 (2011)	기업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장애요인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원산지정보 공유 유인 미흡, 원산지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제시함	
	장기영 (2012)	한-EU FTA 협정내용 분석을 통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FTA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함	
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김한성 등 (2008)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원산지규정 활용 전략을 제시함	
	김한성 (2009)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등 기 발효된 4개의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통해 분석하면서, 각 협정에 있어서의 활용률의 차이와 원인을 연구함	
	조미진·안경애 (2011)	체결된 FTA의 원산지규정 및 기업의 활용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FTA 체결에 반영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제시함	
	나도성·윤영호 (2011)	기업의 FTA 원산지 활용역량으로 원산지규정의 이해도, 원산지판정 능력수준, 원산지절차 이해도 등을 제시함	
중소기업	활용상의 문제	송희영·이영주 (2008)	한-미 FTA의 영향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조명하여 한-미 FTA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함
		김무한 (2010)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차이는 대기업 관련 산업보다는 중소기업 관련 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함
	활용 극대화 방안	이도형 (2013)	한-EU FTA 활용현황 및 그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과 정부에게 대응과제를 제시함
		박철구 (2013)	실증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정보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경쟁력 강화 방안	홍유수·이준호 (2008)	한-EU FTA의 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함
		정분도 (2009)	한-EU FTA의 배경 및 내용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최재섭 (2012)		한-미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소기업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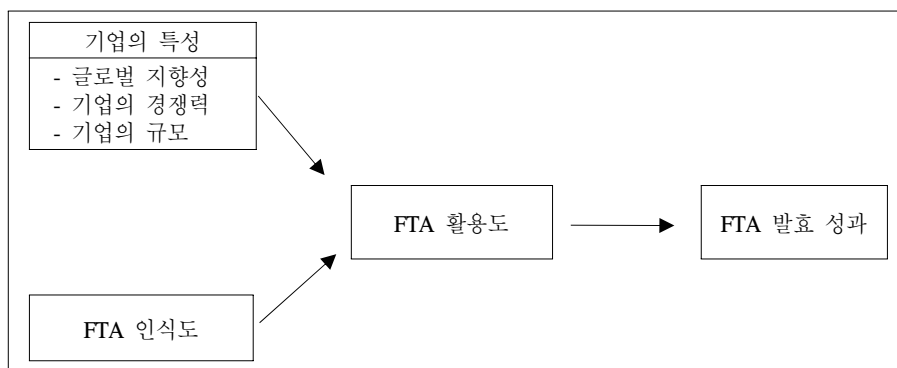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실증분석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강원도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와 FTA 활용도를 파악하고, FTA 활용이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FTA의 발효는 확대된 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반면,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지향성이 떨어지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시장개방에 따른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지향성이 FTA 활용도 및 FTA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지향성과 FTA의 활용도간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FTA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FTA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FTA의 활용도간에 정(+)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한편, 기업의 FTA 활용 요인별로 검토해 보면 기업의 FTA 인지도 (제품의 HS번호 인지도, FTA 협정관세, 원산지결정기준 인지도, 원산지증명서 인지도)와 FTA 활용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의 FTA에 대한 인지도가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각 국의 정부는 기 체결된 FTA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성과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의 FTA 활용이 FTA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가설 설정

송희영·이영주(2008)는 기업의 경쟁력, 해당 시장에 대한 거래경험, 글로벌 지향성 등의 중소기업의 특성요인이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정권 (2003) 및 정구현 (1987)은 기업의 규모, 수출경험, 수출비중 등의 기업특성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형 (2013)은 글로벌 지향성, EU시장의 경험의 기업의 내재적 특성요인이 한·EU FTA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요인과 FTA 활용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기업의 특성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글로벌 지향성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철구·최장우 (2013)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을 요인별로 검토한 후, 기업의 FT 인지도, 원산지관리 인지도, 원산지증명 인지도, 원산지절차 인지도 모두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낮을 경우 FTA 활용에 장애요인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인지도와 FTA 활용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2 FTA 인지도는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인교 (2010)는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해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등 FTA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는 기 체결된 FTA에 대한 기업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를 쏟아내면서 한국 FTA 정책의 성공여부가 기업의 FTA 활용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실무현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3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연구모형 및 가설은 크게 기업의 특성 및 FTA 인지도와 FTA 활용도 사이의 관계분석,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성과 사이의 관계분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계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해 기업의 특성과 FTA 인지도를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각 독립변수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관계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해 FTA 활용도를 독립변수로, FTA 발효에 따른 성과를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 변수에 대해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표3-1>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로 하였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		측정항목	측정방법
기업 특성	기업규모	• 종업원 수	5점 척도
	기업 경쟁력	• 3년간 평균 연매출액	5점 척도
	글로벌 지향성	• 연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점 척도
FTA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제품에 대한 HS 번호 • 수출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에 대한 HS 번호 • 제품에 대한 수출상대국의 수입 관세 (FTA 협정세율) • 수입원재료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 관세 (FTA 협정세율) • 제품에 대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도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EU 지역에 수출 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 ASEAN, 싱가포르, 인도 지역 수출 시 신청 첨부서류가 간소화 •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5년 동안 관련 서류를 보관 •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제재 사항 • 상대국의 FTA 사후검증 • FTA-PASS, FTA-KOREA 등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 FTA (활용)비즈니스 모델 	5점 척도
FTA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발효에 대비하여 준비 • 수출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FTA 특혜관세율 적용신청 •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받음 •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을 위해 BOM (원재료명세서)을 작성 	5점 척도

변수	측정항목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서명권자를 지정 •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 실제로 관련서류를 보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 및 관리 • FTA (활용)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FTA 발효에 따른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 완화·폐지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 한국 (제품) 인지도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 원가절감 및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 • 산업 협력 기회 상승효과 • FTA 발효 후 종합적인 평가 • FTA 향후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 	5점 척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기업의 일반적 사항, FTA의 인지도, FTA 활용현황 및 FTA 발효에 따른 성과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 대상, 방법, 수거된 최종 설문지 개수는 제2장의 강원도 FTA 활용현황 설문조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최종 85개 표본을 중심으로 자료 정리, 통계처리 및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를 사용하였으며, 각 가설의 검증에는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T-test 등의 방법을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타당성, 신뢰성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개념적 타당성을 가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다변량 자료의 분석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이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이용하여 변수 속에 내재된 요인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공통적인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어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전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측정 변수들이 특정 요인으로 구별되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변수들의 선정이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Test of Sphericity)을 사용하였다. KMO의 경우 그 값이 0.8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0.6 이상이면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신뢰성 검증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어떤 측정도구(설문)를 반복하여 적용하였을 때, 그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로 연구자가 사용한 측정도구가 알아내려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믿을만하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재측정법, 항목이분할법, 그리고 내적 일치도법 등이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들의 신뢰성까지 평가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그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몇 점 이상의 기준은 없다. 대개 0.8~0.9 이상의 값이라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0.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0.6 이상이면 수용할 정도 수준이고, 0.6 이하이면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0.6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뢰계수 값의 범위를 사용하였다.

2. 가설검증 결과

1) 기업의 특성과 FTA 활용도

기업의 특성과 FTA 활용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FTA 활용도 측정 변수들을 특정 요인으로 구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FTA 활용도에 관한 변수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10개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KMO값은 0.846로 나타나 변수 선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Bartlett의 검정 경우도 근사 카이제곱이 415.458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활용도1 (수출활용)과 활용도2 (수입활용)의 설명력은 각각 46.902%와 17.759%으로 총 64.66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해당요인에 적재된 각 변수들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도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업특성요인의 신뢰성(Cronbach's α)분석 결과 활용도1 (수출활용)은 0.892, 활용도2 (수입활용)는 0.713으로 나타나 실증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서의훈, SPSS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2005, pp. 210-222.

〈표 4〉 활용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구분		값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46		
Bartlett의 검정		근사 카이제곱		415.458
		유의확률		.000
요인	측정항목	활용도1	활용도2	신뢰도a 값
FTA 활용도	c3:원재료 수입시 FTA 특혜관세율 적용신청		.832	.713
	c4:원재료 직접 수입		.782	
	c5: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받음		.714	
	c2:수출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683		.892
	c6:원산지결정기준 판정을 위해 BOM(원재료명세서)을 작성	.600		
	c7: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서명권자를 지정	.816		
	c8: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780		
	c9:실제로 관련서류를 보관	.907		
	c10: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 및 관리	.874		
	c11:FTA (활용)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662		
	고유값 (Eigen Value)		4.690	
분산(%)		46.902	17.759	

(1) 글로벌 지향성

가설1-1은 글로벌 지향성이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각 변수들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글로벌 지향성에 따른 FTA 활용도1 (수출활용)은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61~80%인 수출입 기업의 FTA 수출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절반이 넘어서는 지점부터 수출비중을 더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TA 활용도2 (수입활용)도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81~100%인 기업의 FTA 수입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원재료 수입 및 구매에 있어서 FTA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글로벌 지향성에 따른 FTA 활용도 분산분석 결과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FTA 활용도1 (수출활용)	0~20%	1.818	.888	6.872	.000
	21~40%	2.538	1.037		
	41~60%	2.917	.702		
	61~80%	3.238	1.043		
	81~100%	2.893	1.279		
FTA 활용도2 (수입활용)	0~20%	1.494	.598	31.132	.000
	21~40%	2.118	.526		
	41~60%	2.702	.693		
	61~80%	3.250	.740		
	81~100%	4.125	1.140		

다음으로 기업군별로 구분하여 글로벌 지향성에 따른 FTA 활용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cheffe검증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해 보았다. <표 6>의 검증결과 수출비중 41~60% 기업군 및 61~80% 기업군의 경우 수출비중 20% 이하인 기업군과 FTA 활용도1 (수출활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체로 글로벌 지향성이 높을수록 FTA의 수입 활용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6> 글로벌 지향성에 따른 FTA 활용도 사후검증 결과

글로벌 지향성		N	a=0.05 에 대한 부집단	
			1	2
FTA 활용도1 (수출활용)	0~20%	29	1.818	
	21~40%	17	2.538	2.538
	81~100%	8	2.893	2.893
	41~60%	19	2.917	2.917
	61~80%	12		3.238
	유의확률		.058	.430

글로벌 지향성		N	a=0.05 에 대한 부집단			
			1	2	3	4
FTA 활용도2 (수입활용)	0~20%	28	1.494			
	21~40%	17	2.118	2.118		
	41~60%	19		2.702	2.702	
	61~80%	12			3.250	
	81~100%	8				4.125
	유의확률		.207	.296	.361	1.000

(2) 기업의 경쟁력

가설1-2는 기업의 경쟁력이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7>의 분석결과 기업의 경쟁력(매출액)에 따른 FTA 활용도1 (수출활용)과 FTA 활용도2 (수입활용)에 대해서 모두 유의수준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5000만불 이상 기업이 다른 집단군의 기업에 비해 가장 높은 FTA 활용도1 (수출활용)을 나타냈으며,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활용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매출액이 1,000만~5,000만불 기업이 다른 집단군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FTA 수입활용을 나타냈다.

<표 7> 기업의 경쟁력에 따른 FTA 활용도 분산분석 결과

기업의 경쟁력(매출액)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FTA 활용도1 (수출활용)	10만 불 이하	1.912	.768	5.437	.001
	10만~100만 불	2.102	1.004		
	100만~1,000만 불	2.776	1.027		
	1,000만~5,000만 불	3.206	1.114		
	5,000만 불 이상	3.486	.424		
FTA 활용도2 (수입활용)	10만 불 이하	2.256	1.098	7.004	.000
	10만~100만 불	1.869	.755		
	100만~1,000만 불	2.411	.962		
	1,000만~5,000만 불	3.667	1.143		
	5,000만 불 이상	3.133	1.121		

기업경쟁력이 다른 기업군간의 FTA 활용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Scheffe검증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의 검증결과 매출액 10만불 이하 기업군의 경우는 매출액 1,000만~5,000만불의 기업군 및 매출액 5,000만불 이상의 기업군과에 FTA 활용도1 (수출활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었다. 매출액 10만~100만 불 기업군의 경우도 매출액 1,000 만~5,000만불의 기업군 및 매출액 5,000만불 이상의 기업군과에 FTA 활용도1 (수출활용)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매출액 10만불 이하, 100만~1,000만불 및 10만~100만불 기업군들의 경우 매출액 1,000만~5,000만불의 기업군과에 FTA 활용도2 (수입활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8〉 기업의 경쟁력에 따른 FTA 활용도 사후검증 결과

기업의 경쟁력		N	a=0.05 에 대한 부집단	
			1	2
FTA 활용도1 (수출활용)	10만 불 이하	13	1.912	
	10만~100만 불	28	2.102	
	100만~1,000만 불	30	2.776	2.776
	1,000만~5,000만 불	9	3.206	3.206
	5,000만 불 이상	5		3.486
	유의확률		.058	.582
FTA 활용도2	10만~100만 불	28	1.869	
	10만 불 이하	13	2.256	
	100만~1,000만 불	30	2.411	2.411
	5,000만 불 이상	5	3.133	3.133
	1,000만~5,000만 불	9		3.667
	유의확률		.055	.058

(3) 기업의 규모

가설1-3은 기업의 규모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9>의 분석결과 기업의 규모에 따른 FTA 활용도1 (수출활용)과 FTA 활용도2 (수입활용)의 유의확률이 각각 0.138, 0.467로 높아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기업의 규모에 따른 FTA 활용도 분산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종업원 수)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FTA 활용도1 (수출활용)	10명 미만	21	2.157	.915	1.912	.134
	10~50명	44	2.500	1.099		
	50~100명	10	2.714	1.212		
	100~500명	10	3.086	.934		
FTA 활용도2	10명 미만	21	2.318	.872	.684	.564
	10~50명	44	2.280	1.088		
	50~100명	10	2.633	1.347		
	100~500명	10	2.733	1.184		

한편, 상기 분산분석 방법은 집단간의 차이여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특성으로 가정한 세 개의 독립변수들이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기업특성과 FTA 활용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T	유의확률	R제곱	F	D-W	검증결과
FTA 활용도1	글로벌 지향성	.336	3.370	.001	.301	11.624 ***	2.163	채택
	기업의 경쟁력	.313	2.628	.010				채택
	기업의 규모	.031	.275	.784				기각
FTA 활용도2	글로벌 지향성	.731	9.96	.000	.621	44.245 ***	2.127	채택
	기업의 경쟁력	.177	2.00	.050				채택
	기업의 규모	-.06	-.766	.446				기각

*p<0.05, **p<0.01, ***p<0.001

<표 10>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FTA 활용도1 (수출활용)이 미치는 결과를 보면, 글로벌 지향성의 경우 Beta가 0.336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쟁력의 경우에도 Beta가 0.313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784로 높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FTA 활용도2 (수입활용)이 미치는 결과를 보면, 글로벌 지향성의 경우에 Beta가 0.731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경쟁력의 경우에도 Beta가 0.177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446로 높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업의 내재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글로벌 지향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FTA 활용도2 (수입활용)에 있어서 글로벌 지향성은 기업의 경쟁력보다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FTA의 인지도와 FTA 활용도

가설2는 FTA 인지도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기업의 FTA 인지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1>은 FTA 인지도요인에 관한 변수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FTA 인지도요인 분석과 관련 15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KMO값은 0.826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에 문제가 없으며, Bartlett의 검정 경우에도 근사 카이제곱이 828.004로 유의수준은 0.00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인지도1(사후관리)의 설명력은 42.549%를, 인지도2(발급절차)의 경우 16.858%, 인지도3(HS 세율)의 경우 9.000% 보여 총 68.407%의 설명력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당요인에 적재된 각 변수들의 요인 적재값도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특성요인의 신뢰성분석 결과 인지도1은 0.914, 인지도2는 0.860, 인지도3은 0.792로 실증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활용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구분		값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26			
Bartlett의 검정		근사 카이제곱	828.004		
		유의확률	.000		
요인	측정항목	인지도1 (사후관리)	인지도2 (발급절차)	인지도3 (HS 세율)	신뢰도 a 값
FTA 인지도	b1:수출제품에 대한 HS번호			.746	.792
	b2:수출제품 구성 원재료에 대한 HS번호			.806	
	b3:수출상대국의 수입 관세(FTA 협정세율)			.803	
	b4:우리나라 수입 관세(FTA 협정세율)			.644	
	b5:제품에 대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839		.860
	b6: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도		.833		
	b7: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749		
	b8: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680		
	b9:EU지역에 수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	.724			.914
	b10:ASEAN, 싱가포르, 인도지역 수출시 신청서류 간소화	.735			
	b11: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5년간 관련 서류 보관	.825			
	b12:원산지 규정 위반 시 제재 사항	.775			
	b13:상대국의 FTA 사후검증	.864			
	b14:FTA-PASS, FTA-KOREA 등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780			
	b15:FTA (활용)비즈니스 모델	.810			
고유값(Eigen Value)		6.382	2.529	1.350	
분산(%)		42.549	16.858	9.000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3개의 FTA인지도를 요인점수 계수행렬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FTA인지도가 FTA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12>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FTA의 인지도1 (사후관리)과 인지도2 (C/O발급절차)와 인지도3 (HS 및 수입관세율)은 FTA 활용도1 (수출활용)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인지도3 (HS 및 수입관세율)과 FTA 활용도2 (수입활용)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수출활용의 경우 인지도1,2,3의 모든 항목들이 관련이 있고, 수입활용의 경우는 인지도3 (수입관세율)의 항목들만이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FTA인지도와 FTA 활용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인지도1	2.733	1.033	1				
2. 인지도2	3.212	.972	.484**	1			
3. 인지도3	3.159	1.031	.294**	.501**	1		
4. 활용도1	2.509	1.070	.325**	.489**	.514**	1	
5. 활용도2	2.384	1.077	.066	.203	.309**	.337**	1

* P < 0.05 **P < 0.01

<표 13>의 FTA 인지도와 FTA 활용도 회귀분석 결과, FTA 인지도2 (C/O 발급절차)와 FTA 인지도3 (HS 및 협정세율)은 활용도1 (수출활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FTA 인지도3 (HS 및 협정세율)은 FTA 활용도2 (수입활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기업은 FTA 인지도2 (C/O 발급절차)와 FTA 인지도3 (HS 및 협정세율)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며, 수입기업은 FTA 인지도3 (HS 및 협정세율)가 높을수록 FTA 수입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FTA인지도와 FTA활용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ate	T	유의확률	R제곱	F	D-W	검증결과
활용도1 (수출활용)	인지도1 (사후관리)	.092	.888	.377	.343	14.077 ***	1.699	기각
	인지도2 (발급절차)	.268	2.352	.021				채택
	인지도3 (HS세율)	.353	3.389	.001				채택
활용도2 (수입활용)	인지도1	-.060	-.499	.619	.101	3.044 *	1.835	기각
	인지도2	.091	.684	.496				기각
	인지도3	.281	2.304	.024				채택

* P < 0.05, **P < 0.01, ***P < 0.001

3)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영향

가설3은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영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기업의 FTA 인지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FTA 발효영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관련 7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KMO값 0.825, 신뢰도a값 0.878, 유의확률 $p < 0.001$, Bartlett의 검정 등에 있어서 변수 선정에 문제가 없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FTA 발효영향 성과로 명명할 수 있었다.

<표 14>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구분		값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25	
Bartlett의 검정		근사 카이제곱	353.138
		유의확률	.000
요인	측정항목	FTA 성과	신뢰도a 값
FTA 발효 영향 성과	d1:관세율 완화·폐지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850	.878
	d2: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854	
	d3: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826	
	d4:원가절감 및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	.700	
	d5:산업 협력 기회 상승효과	.821	
	d6:FTA 발효 후 종합적인 평가	.600	
	d7:FTA의 향후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	.670	
고유값(Eigen Value)		4.103	
분산(%)		58.282	

기업의 FTA 활용도에 따라 FTA 발효의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FTA 활용도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구분하고, 이들 기업군 사이에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FTA 활용도에 따른 FTA 발효의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FTA 활용도가 FTA 발효에 따른 영향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FTA 활용도 평가점수가 보통(=3)이상인 집단과 보통 이하인 집단으로 재분류하고 T-test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15>의 분석결과, 7개 항목중 FTA 발효 후 종합적인 평가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FTA 활용도가 높은 기업이 FTA 활용도가 낮은 기업보다 FTA 발효에 따

른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는 FTA 활용도가 FTA 발효에 따른 영향에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영향에 대한 T-test 결과(1)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평균차이
관세율 완화·폐지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활용도 낮은 기업	3.18	.940	-.321	-.07
	활용도 높은 기업	3.25	.794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활용도 낮은 기업	3.20	.928	-.447	-.09
	활용도 높은 기업	3.29	.751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활용도 낮은 기업	3.05	1.007	-.523	-.12
	활용도 높은 기업	3.17	.702		
원가절감 및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	활용도 낮은 기업	2.89	1.034	-.895	-.19
	활용도 높은 기업	3.08	.504		
산업 협력 기회 상승효과	활용도 낮은 기업	2.95	.939	-.623	-.13
	활용도 높은 기업	3.08	.717		
FTA 발효 후 종합적인 평가	활용도 낮은 기업	2.82	.785	-2.69*	-.47
	활용도 높은 기업	3.29	.550		
FTA의 향후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	활용도 낮은 기업	3.38	.934	-.776	-.16
	활용도 높은 기업	3.54	.721		

* P < 0.05, **P < 0.01, ***P < 0.001

종합적으로 FTA 발효에 따른 영향 평가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T-test를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6>의 분석결과 FTA 활용도에 따른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은 강원도 기업들에게 아직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6>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영향에 대한 T-test 결과(2)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값	평균차이
FTA의 영향	활용도 낮은 기업	21.46	4.972	-1.11	-1.25
	활용도 높은 기업	22.71	3.747		

* P < 0.05, **P < 0.01, ***P < 0.001

3. 실증분석 요약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해보면, 기업의 특성의 경우 분산분석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지향성, 기업 경쟁력 2개 항목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글로벌 지향성과 기업 경쟁력 2개 항목은 FTA의 활용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규모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업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글로벌 지향성과 기업 경쟁력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7〉 가설검증 결과 요약

구성개념		가설내용	상관성	채택여부
가설 1		기업의 특성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기업 특성	글로벌 지향성	가설1-1 : 기업의 특성 중 글로벌 지향성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기업의 경쟁력	가설1-2 : 기업의 특성 중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기업규모	가설1-3 : 기업의 특성 중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각
가설 2		기업의 FTA에 대한 인지도는 FTA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가설 3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영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각

FTA의 인지도요인이 FTA 수출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15개 항목 중 수출 HS번호 및 FTA 협정세율 인지도(수출제품에 대한 HS번호, 수출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에 대한 HS번호, 제품에 대한 수출상대국의 FTA 협정세율, 수입원재료에 대한 우리나라 FTA 협정세율), C/O 발급절차 인지도(제품에 대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도,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등 8개 항목이 FTA 수출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에 수출 HS번호 및 FTA 협정세율 인지도와 C/O 발급절차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TA의 인지도요인이 FTA 수입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15개 항목 중 수출 HS번호 및 FTA 협정세율 인지도(수출제품에 대한 HS번호, 수출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에 대한 HS번호, 제품에 대한 수출상대국의 FTA 협정세율, 수입원재료에 대한 우리나라 FTA 협정세율) 등 4개 항목이 FTA 수입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에 수출 HS번호 및 FTA 협정세율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입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의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FTA 발효는 강원도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가설된 가설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채택된 항목과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최근 FTA 체결이 늘어감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FTA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경제적 효과는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역과 산업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그 지역적 특색으로 인하여 제조기반이 매우 여력하며 대기업의 투자가 적고 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강원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현황 및 FTA 활용지원제도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었고, 주요 FTA 수출입 지역은 ASEAN, EU와 미국으로 나타났다. FTA 인지도는 플라스틱, 철강과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FTA 활용도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공업에서, FTA 성과는 광석, 철강공업과 의료기기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해보면, 기업의 특성의 경우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성은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 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FTA 인지도와 FTA 수출활용도 간의 관계의 경우, 인지도 15개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이

FTA 수출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강원도 기업은 수출 HS번호 및 FTA 협정세율 인지도와 C/O 발급절차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TA 수입활용도의 경우, 15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이 FTA 수입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역시 수출 HS번호 및 FTA 협정세율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입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영향(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TA 발효성과에 관한 7개 설문항목 중 FTA 발효 후 종합적인 평가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이 수출자에게 보다는 FTA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가절감 등 가시적인 영향(성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FTA 활용이 수출자에게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가 상당부분 철폐되고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안정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적어도 향후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원 FTA 활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은 강원도 업체들이 FTA 활용을 제고시켜 가시적인 FTA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FTA 활용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활용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체계 개선방안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방안, 원산지정보 플랫폼 구축방안, 원산지제도의 간소화, 원산지정보 인증제도 및 민간 컨설팅시장의 육성방안,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 그리고 시장 유통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정보 관리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²⁾

참 고 문 헌

- 강원 FTA 활용지원센터, “2013 강원도 산업별 FTA 활용도: 실태조사 및 비즈니스모델”, 2013.
- 김무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정권,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과 성과의 구조적 관계”, 「국제통상연구」, 제8권

2) 박철구(2013),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지원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2.

- 제2호, 한국통상학회, 2003.
- 김한성·조미진·김민성·양주영·정재완, “FTA 이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세행정 발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김한성,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현황 및 시사점”, KIEP, 2009.
- 나도성·윤영호, “FTA 환경하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호 제3호, 2011.
- 남풍우·최준호,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2007.
- 박철구·최장우,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3.
- 박철구,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지원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송희영·이영주,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2008.
- 심재권, “FTA 활용역량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한국과 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안재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필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2008.
- 윤영호·나도성, “FTA 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8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3.
- 이도형, “한국 중소기업의 한·EU FTA 활용 현황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준건, “한국 강원도 경쟁력우위 산업의 FTA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관한 실증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태영·임목삼·명재호·임병호·김덕연·윤호성,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1
- 정구현, 「한국경영론」, 서울, 1987.
- 장기영, “한·EU FTA 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12.

정분도, “한-EU FTA 분석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5권 2호, 2009.

정인교, “FTA 활용활성화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조미진·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2011.

서의훈, 「SPSS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2005.

최재섭, “한-미 FTA 체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2.

홍유수·이준호, “거대경제권 FTA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http://www.fta.go.kr/main/apply/fta/export/1/>, 산업부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관세청 FTA포털

<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FTA Performance of FTA Awareness and Applicability

Tae-In Kim* · Jun-Jian Li**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nfirm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and performance results of the FTA in Gangwon-do. To this end, eighty-six companies(90% SMEs) which participate in both import and export were surveyed regarding their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the FTA, and current performance was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1) a company's global orientation (as measured in export density as a percentage of profit) and 2) its competitiveness (as measured in annual sales), and a company's degree of utilization of FTA provisions.

Second, we found that increased awareness of the provisions of Korea's FTA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degree to which companies were able to benefit financially from Korea's FTAs.

Third, however, at the time of this study's completion, FTA utilization was not yet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formance results.

Therefore, to increase the utilization and performance of FTA,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make a efficient business models for each industry and support the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including Gangwon province's SMEs.

Key Words : FTA awareness, FTA utilization, FTA performance, Gangwon provinc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Ludong University, Co-Author